

성화 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다.

벧전1:14-17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갔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1. 칭의: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지옥, 사망 벗어나는 것
2. 성화: 죄의 힘에서 구원받는 것,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매일 해야 하는 일
3. 영화: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천국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이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한다.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여기서 승리해야 나도 기쁘고 주변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는다.

사람이 아프면 여러 증세가 나타나다. 증세를 하나 하나 치료하는 것으로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

근본 원인: 무슨 병이냐? 그 병을 치료해야 증세들이 없어진다.

지금 대한민국이 증병에 걸렸다. 가장 큰 원인: 교회

그러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성도다운 성도가 많지 않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왜 몰라서?

“얼마나 성경을 알고 성경의 하나님을 아는가?” 이것이 관건이다.

지난 주,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자존하시는 분, 생명의 근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 영존하는 분, 영존하는 생명,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하나님처럼 된다. 영화 그러면 그 본성에 참여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면 될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한다.

생명의 특징: 반드시 활동을 한다. 무생명은 활동이 없다. 봄철, 몇 개의 씨를 뿌린다.

생명이 있는 것, 반드시 싹을 낸다. 자란다. 꽃을 피운다. 씨를 남긴다.

즉 생명체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생명을 반드시 삶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 구원받기 전, 첫 사람 아담의 생명, 그 생명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 생명의 특징: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 결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

롬1:29-31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일을 하게 되어 있다. 첫 사람 아담이 하는 일과 반대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이 과정이 성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갈4:19)

우리는 위인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위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인전을 읽게 한다.

그 위인들이 다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위인은 지혜롭다. 용감하다. 사랑이 많다. 돈을 잘 번다. 남을 잘 돕는다, 정직하다

이런 위인전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의 이런 품성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넣고 연마하면

그런 사람에 가까워진다. 즉 인간은 학습하는 능력이 있다.

성경의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가진 분으로 표현된다.

선하심(Goodness), 모든 선한 것의 기준, 은혜로우심(Graciousness), 불변하심

(Immutability), 전지전능, 무소부재, 의로우심, 진실하심, 사랑하심, 신실하심

인격체, 영적 존재, 거룩하신 분, 삼위일체, 자존성, 영

이 여러 성품과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하신다.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되라고 하신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과 인간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창세기: 창조, 죄, 사망, 고통

출애굽기: 이집트 속박, 어린양의 피로 구원, 이집트 탈출, 구원(칭의)

레위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기쁘게 하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면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서의 행복 등은 보장이 되어 있다. 성화

민수기: 성화 과정에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죽어 나가는 것을 보여 줌

신명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을 설명하시고 생명을 택하라고 촉구하심(신30:19) 내가 이 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나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성화, 그러므로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남자 아이는 1차적으로 아버지처럼 되려 하고 여아 아이들은 어머니처럼 되려고 한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처럼 되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처럼 되라고 하시면서 언급하는 속성은 무엇인가? 거룩함이다.

레11:44-45, 45를 보라. 구원 다음 성화

20:7, 20:26, 26을 보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다. 이것이 거룩함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히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사람을 살아야 한다.

holy, 611회, 레94회, 이만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강조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망성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렸다.

#### 거룩함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러 속성 중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강조하실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근본 속성이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을 잘 알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거룩하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창조물,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창조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구분을 거룩함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거룩함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생각해 보자. 사람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된다.

지금 이 시간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 공기를 주신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대의 것이다. 창조물의 사랑과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거룩한 은혜라고 말한다.

사람이 신실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거룩한 신실함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다. 거룩한 오래 참음(벧후3:9)

사람이 의로울 수 있다. 거룩한 공의

사람의 공의가 발동하면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대상자는 목숨을 잃는다.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면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지옥 불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심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왜 거룩한 공의를 발동할 수 있는 분이니까. 마10:28, 히12:28-29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다 거룩하다. 인간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속성 면에서 인간과 철저히 구분된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근본 속성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공포를 알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영의 인도에 순종하려고 자기 것을 내려놓는다.  
어느 정도로 거룩함이 중요한가?

자식들이 기준에 맞게 따라오지 못하면 부모가 징계한다.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히12:8,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

히12:9, 하늘 아버지도 징계하신다.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

히12:10 세상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잘못된 징계 가능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

그 목적: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히12:4, 둘 다 맞는다. 그러나 그리스어 용례로 보면 거룩함이 더 맞는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천국에서도 주를 보지 못한다. 주님 앞에서 서지 못한다.

마5:8 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이 정도로 설명하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것이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가?

벧전1:14-16 강해, 혼의 구원(9), 구원받은 뒤 순종하려는 사람(14)

어떤 면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가? 벧전1:17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침대에서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1주일 내내,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들(잠6:16-19)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악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다(2:19).

3:15

## 결론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가?

성경에 해박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성화  
왜 우리가 성화에 힘을 써야 하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므로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40년 동안 장송곡을 들으면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처럼 된다.

자신의 삶, 가정, 교회, 국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 거룩함의 상실  
거룩함을 따라야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나안까지 들어간다.

이왕이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